

(6.13 시행) 2015년 서울시 9급 국어(B책형)

해설/답 : 안 한 섭 선생님

[충남대앞 제일고시학원]

1. 정답 ③

‘머무를’은 기본형 ‘머무르다’를 활용한 말로 적당하다.

오답 풀이

① ‘열둘째’는 ‘열두 개째(수량)’를 의미하고, ‘열두째’는 ‘열두 번째(순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열두째로 써야 한다.

② 떨어먹다 → 털어먹다

④ 솟병아리 → 수평아리

2. 정답 ①

상실(喪失)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오답 풀이

② 성장(成長):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③ 이상(異常):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이상(以上):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

이상(理想):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이상(異狀): 평소와는 다른 상태.

④ 해동(解凍):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또는 그렇게 하게 함.

3. 정답 ②

<보기>의 서술 방식은 그림을 그리듯이 나타내는 ‘묘사’이다.

오답 풀이

① 서사

③ 비유(유추)

④ 인과

4. 정답 ③ ㄹ‘이런 위기’에서 ㄹ앞에 오는 문단은 과학 기술에 의한 ‘위기’가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은 ㄱ과 ㄷ이므로 ‘ㄱ-ㄷ-ㄹ’ 순서로 나오는 문단을 고르면 된다.

ㄴ은 도입 (과학 기술에 대한 낙관적 태도)

ㄱ은 그러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

ㄱ은 ㄱ의 부연

ㄷ은 또 다른 문제점

ㄹ은 낙관적 전망에 대한 우려

5. 정답 ④

① 녕쿨/덩굴(복수 표준어), 놀잇감/장난감(복수 표준어) 따라서 덩쿨 → 녕쿨/덩굴, 놀이감 → 놀이감/장난감

② 윗어른 → 웃어른

③ 지리하다 → 지루하다

6. 정답 ②

<보기>는 접미사가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꾼다고 했다.

그러나 '낮습'은 형용사 '낮설다'의 명사형이다. 따라서 품사는 형용사이다. 품사를 바꾸지 않았으므로 보기에 해당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 '본보기'의 의미라면 보다(동사)를 명사로 바꿈. 그러나 '보기'는 동사 보기의 명사형도 가능하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③ 맞추다: 낮다(형용사)를 동사로 바꿈.

④ 꽃답다: 꽃(명사)를 형용사로 바꿈.

7. 정답 ②

<보기>에 의하면 교체 현상을 대치라는 용어로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술하고 → [술하고](음절의 끝소리 규칙/대치) → [소타고](축약)

대치(代置: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8. 정답 ①

-'ㄴ망정'은 어미이다. 따라서 붙여 쓴다. '아니 쪼겠다'에서 '아니'는 부정 부사 '안'('아니'의 준말)과 같은 의미이므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ㄴ지라도'는 어미이므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대신'은 (어미 '-은', '-는' 뒤에 쓰여)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다. 따라서 앞 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ㄴ지'는 추측의 의미이므로 어미이다, 따라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9. 정답 ②

국어의 형태적 특징(단어)은 교착어, 첨가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한다. 동사와 형용사는 어미가 변하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예다. 나머지는 국어의 통사적 특징(문법적 특징)에 해당한다.

10. 정답 ④

오답 풀이

① 팜플렛→ 팸플릿

② 리더쉽→ 리더십, 소세지→ 소시지

③ 쇼파→ 소파, 썩크대→싱크대, 바디로션→ 보디로션, 스카웃→ 스카우트

11. 정답 ③

병서(竝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나란히쓰기'를 의미하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병서가 있다.

12. 정답 ④

<보기>의 ‘타다’는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의 의미이다. 즉 이용하다는 뜻인 4번과 동의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복이나 재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②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 ③ 부끄럽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
- ④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

13. 정답 ②

<보기>에서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났는데 상대방은 핑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비이락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4. 정답 ①

도청도설(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나머지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의미한다.

15. 정답 ②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

16. 정답 ④

대수로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

예) 대수로이 여기지 않다./그 사건은 대수로이 생각할 일도 아닌데 웬 법석이나.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는 ‘하찮아’이다.

17. 정답 ①

억압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와 고독감이나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보편과 특수로 오해할 수 있으나, 보편과 특수이 되려면 보편적(일반적)인 이론이 나오고 거기에 맞지 않은 특수한 사례(예외)가 나와야 한다.

논리적 구조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필자의 논리, 즉 주장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왜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지'이다 따라서 인과에 해당한다.

18. 정답 ④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을 배경으로 함. 기출 문제와 유사.

19. 정답 ④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연은 장애물(갈밭)을 건너서도 즉, 저승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때 쓰인 '바람'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 연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단절을 의미한다.

20. 정답 ③

<보기>는 임과 이별한 후 속이 타는 것을 촛불에 감정이입을 했다. '정서'를 물어 보았기 때문에 임과의 이별로 몹시 안타까워하는 것(그리움)을 고르면 된다.

- ① 봄밤의 애상적 정서
- ② 늙음에 대한 탄식
- ④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